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정보보호협의회 2010년 금융권역별 정보보호 강화

- 지난 9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(CIO)를 대상으로 ‘2009년도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’를 개최하여 2010년 금융부문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IT감독 방향을 설명함.
 - 금융회사의 사이버테러 역량 강화에서는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을 도입 등으로 기술적 대응을 의무화하고, 정보보호 관리체제 개선을 유도, 금융정보보호 유관기관의 정보보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한다는 방침임.
 - IT부분 감독검사 강화는 종합검사 시 IT부분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고,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, 새로운 전자금융 보안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, IT감독기준 선진화를 감독정책에 반영할 예정임.
- 금융정보보호협의회 2010년 사업계획으로는 금융정보보호 우수논문 공모전,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, 금융권역별 정보보호 기술 세미나 개최,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대국민 홍보책자 발간 등이 있음.
 - 금융정보보호 우수 논문 공모전은 금융부문의 정보보호 인식을 고취하고 입상된 우수논문에는 시상 및 논문집으로 배포한다는 방침임.
 - 또한 금융회사 IT 및 정보보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정보보호 기술 및 정책 트렌드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정보보호 주제의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.
 - 금융권역별로는 은행, 증권, 보험, 카드 4개 금융회사별로 연 6회에 걸쳐 정보보호 실무자가 참석하는 기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임.
 - 2010년 하반기부터는 대국민과 금융회사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전자금융 관련법 또는 규정 해설, 안전한 전자금융 가이드라인 등의 책자도 발간할 예정임.
- 아울러 정기총회 당일 금융정보보호에 기여한 금융정보보호 유공자에 대한 금감원장 표창 등을 실시하는 한편, ‘금융회사에서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(CSO: Chief Security Officer)의 필요성과 역할’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되었음.

(2009년도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정기총회 개최,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 IT업무팀, 12/9)